

한미동맹 70주년 윤 대통령 방미... '행동하는 동맹' 구현

외교부, 대통령 업무보고

한일관계 '포괄적 해결' 재확인

중국 상대 '당당한 외교' 강조

유럽과 '가치 외교 파트너십' 협력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 안보, 경제, 기술 등 분야에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일 외교는 경제정용 해법 마련,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중관계는 '당당한 외교' 기조 아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외교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한미동맹은 지난해 양국 정상이 발표한 목표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업그레이드 해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양자 차원의 미국 방문이 추진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을 찾은 바 있어 이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이르면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가 '행동하는 동맹'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미국과의 밀착 행보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한국산 전자차 부품 등 해결을 위해 미국 의회 내 지한파 네트워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미 고위급 확장경제 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어 미국의 확장경제 제정과 관련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한일관계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지향한다는 밑그림 아래 관계 개선에 필요한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선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경제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12일 열리는 공개토론회를 끝으로 여론 수렴 작업을 마치고 경제정용 해법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및 사과 등이 여전히 불투명해 피해자가 공감할만한 내용일지는 미지수다.

경제정용 문제가 해결되면 정상 간 서투외교도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정용과 같은 현안을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한일관계가 진전이 되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런 서투 정상외교의 복원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에 있어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정상 상호방문과 실질 협력 강화, 우호 정서 확대 등이 추진된다.

미중갈등 상황 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한중관계 리스크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각국의 자국민 입국제한 조치에 대응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단기비자 발급 제한조치를 취한 것도 일각에선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두 나라 움직임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러관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고려해 국제적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관리를 과제로 설정했다.

유럽과는 '가치 외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실질 협력에 주력한다.

중동에 대한 '제2의 중동 봄' 실현을 위해 에너지·인프라 경제 협력 확대를 도모하고 내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의 준비 작업도 올해 본격 진행된다.

중남미 국가와는 리튬 등 미래전략광물 확보와 수출 증진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이 진행되며,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우리 외교정책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협력 계획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양자·다자 회담 계기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나경원(앞줄 맨 왼쪽) 전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장 신년인사회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윤석열 정부 성공 놓고 당 대표 출마 고민 중"

국힘 지지층 여론조사 30.7% 1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11일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이를 위해 무엇이 중요하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 내 서울 동작구청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나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

민의회 정당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 등을 놓고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라고 거듭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오는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차기 당 대표로 나경원 전 의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0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 전 의원이 30.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김기현 의원(18.8%), 유승민 전 의원(14.6%), 안철수 의원(13.9%), 황교안 전 대표(5.3%), 윤상현 의원(2.4%), 조경태 의원(1.9%) 등의 순이었다.

전체 조사대상 중에서는 유 전 의원이 33.9%로 가장 높았고, 나 전 의원(15.0%), 안 의원(11.4%), 김 의원(8.8%), 황 전 대표(3.5%), 윤 의원(1.7%), 조 의원(1.6%) 순이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진표 의장 "국회 개헌특위 출범시키겠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제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대를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한 데 이어 개헌 논의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면서 정치개혁 주도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김 의장은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 과정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에게 개헌 일정표를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 정치, 팬덤 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안철수 "수도권 후보 연대 가능성...나경원 출마하면 좋겠다"

11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수도권 후보들 간 연대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상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다 수도권인데 그 중에서 한 명만 결선에 올라간다면 지지·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하나같이 '표를 한 표라도 더 보태줄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 밖에 없다' (고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정말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권 레이스 구도를 흔들 최대 변수로 꼽히는 나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선 "저는 출마하셨으면 좋겠다"며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다만,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내놓은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는 것은 비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국정과제를 선정한 것을 거론, "110개 중에 하나라도 대통령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적이 없지 않느냐"며 "원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이 친윤계를 중심으로 연일 세몰이에 나서는 것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저렇게 보여주기로 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려고 할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당대회 캠프 개소식에 3000여명이 참석했다는 김 의원 측 발표에 대해선 "자발적이 아니다. 버스로 이렇게 많이 동원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과 친윤(친윤석열)계 실세 장제원 의원의 소위 '김장 연대'에 대해선 "두 분 중에 한 분이 수도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며 "잘못하면 우리는 정말 '영남 자민련'으로 또다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장감치는 3월이면 쓴다"는 자신의 비판에 김 의원이 "각종 전자기기가 감치를 잘 숙성시켜준다"고 반박한 것도 "그렇게 돈을 많이 써야만 겨우겨우 보관할 수 있다니 너무 애처롭다"고 다시 받아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모집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23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0
사 범	유아교육과	3
예 능	음 악 학 부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4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국제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 형 일: 2023. 2. 6(월)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